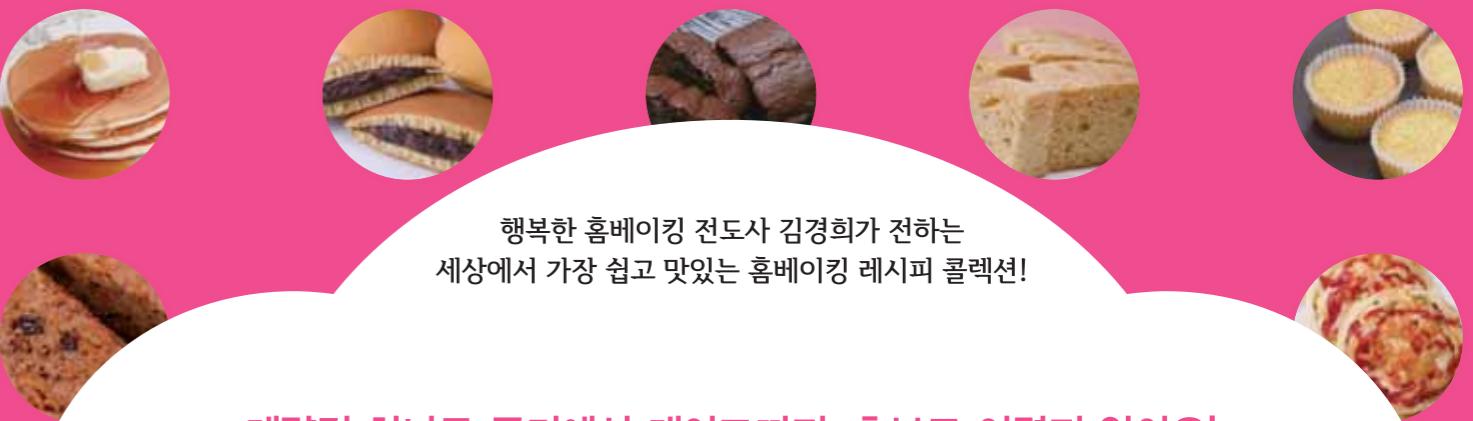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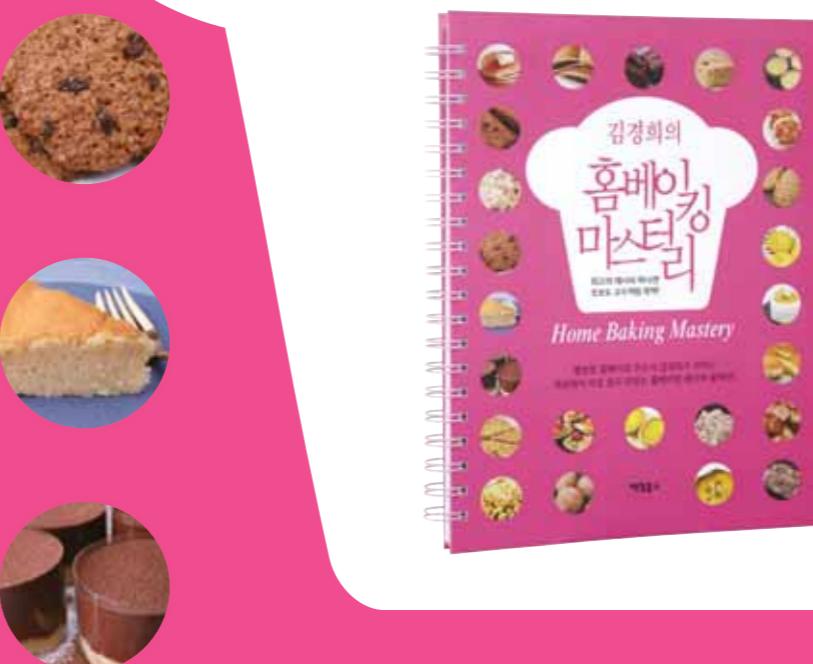


# Pamify

2014 4월~6월 vol.05



## 계량컵 하나로 쿠키에서 케이크까지, 초보도 어렵지 않아요! 현직 외교관의 아내 ‘김경희’씨가 쓴 홈베이킹 완벽가이드!



## *Home Baking Mastery*

### [다른 디저트 책과 차별이 되는 이 책만의 특징]

#### 홈베이킹 재료와 레시피 기준을 계량컵으로 간편하게!

기존의 홈베이킹 책은 레시피가 대부분 그램(g)으로 표기되어 정밀성을 놓아 만들기 어려워 디저트 만들 엄두를 내지 못했다. 이 책은 케이크를 자주 만드는 서구와 같이 계량컵과 계량스푼으로 누구나 쉽고 실용적으로 만들게 하였다. 계량컵도 미국식(1컵이 240ml)과 한국/일본식(1컵이 200ml)을 매 레시피마다 각각 수록하여 혼동이 없게 하였다.

#### 쉽게 후다닥 나만이 할 수 있는 검증된 안심 레시피 수록!

복잡해 보이는 쿠키 케이크 디저트도 이미 검증된 상세한 진행 순서 사진으로 소개함으로써 초보자도 이 레시피를 그대로 따라 하기만 하면 누구나 같은 맛을 낼 수 있고 성공적인 디저트를 만들 수 있다.

너무 단 디저트, 방부제 들어간 디저트는 이제 그만! 한국인 입맛에 딱 맞는 건강하고 착한 레시피!

외교관의 아내인 저자가 프랑스, 미국 등 베이킹 본고장에서 배운 맛있는 레시피만을 엄선하여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당도의 맛으로 개선했다. 방부제가 들어가지 않은 건강한 디저트를 손수 만들고 싶어 하는 어린 아이를 가진 엄마들에게 희소식!

# 고객의 꿈이 만들면 명품이다



고객의 꿈을 인쇄하는  
대한민국 인쇄 1위 팩컴코리아

팩컴은 품질, 가격, 납기 만족을 넘어  
고객의 생각과 꿈을 인쇄하여  
고객의 가치를 최상으로 구현한다는  
고객 가치 경영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Pacom

Pacom AAP

MIRAEING

Pacom Books

BOOK JIHYERO

Book Make

BOOK MATE



- |    |        |                  |
|----|--------|------------------|
| 02 | 창찬합니다  | 패밀리 칭찬릴레이        |
| 03 | 도서전    | 블로나아동도서전         |
| 04 | 피플     | POD 김익성 과장님      |
| 05 | 가족의 편지 | 제본사업본부 윤인자 사원    |
| 06 | 공감     | 찬란한 봄과 나의 부모님    |
| 08 | 힐링로드   | 통영까지 온다고 욕 봤찌예!  |
| 10 | 봄이야기   | 봄이 오는 소리         |
| 12 | 팩컴파트너  | 댄디앤디자인 / (주)주성해운 |
| 14 | 찰칵소리   |                  |
| 16 | 팩컴뉴스   |                  |

vol.05  
2014 April, May, Ju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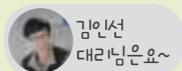
Pacom Family  
Pacom

## CONTENTS

# 패밀리 칭찬릴레이



김인선 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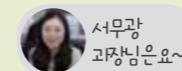


본인이 맡은 일에 책임감을 갖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언제나 보기 좋습니다. 각 부서에서 필요한 배열표를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하게 작성하여 현장에 내려 보내고, 부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작업 연결을 합니다.

본인 업무에 매사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 과히 칭찬 받을 만하고, 팩컴 그룹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 합니다.



서무광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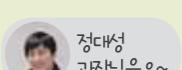


일적으로 오래 봐와서 그런지 참 편안하고, 따뜻한 분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인품도 훌륭하십니다. 작업을 연결할 때나, 관련문의를 드릴 때에도 그 상황에 맞는 포인트를 한번에 캐치하셔서 일을 잘 풀어 주십니다. 한마디로 센스가 좋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일을 하게 되면 자연스레 상대방에게 신뢰와 믿음을 주는 그런 분이십니다.



정대성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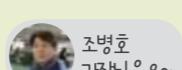


항상 긍정적이고 책임감이 강하신 분입니다. 경력과 경험이 풍부하여 모두가 인정하는, 회사에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인재인 거 같습니다. 항상 힘든 일과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으시고, 언제나 미소로 맞아주십니다.

또한 축구, 탁구, 테니스 등 운동에 능한 만능 스포츠맨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인진 몰라도, 사내에서 인기가 좋으신 거 같습니다. 언제나 미소로 맞아주시는 정대성 과장님, 파이팅입니다!!



조병호



상을 주고 싶고, 상을 주어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평균 출근 시간이 6시 30분일 정도로 부지런하고, 계으름을 피우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더 일찍 출근해서 작업 준비를 하며, 항상 맡은 일에 묵묵히 최선을 다합니다. 일이 힘들어도 힘든 내색 한 번 하지 않고, 웃음으로 이겨내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모습 변치 않길 바랍니다.



순한 비즈니스의 장이 아니다. 책을 매개체로 사람들은 서로 만나고, 인사하고, 서로의 문화를 배우며 나눈다.

판권을 파는 사람과 판권을 사는 사람, 그림을 손에 들고 다니며 자신의 작품을 소개하는 젊은 일러스트레이터들, 작가들 그리고 에디터들이 하나의 시공간에서 어울리며 이 상황 자체를 즐기고 있다. 욕심을 가진다고 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 보장은 없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 그저 '책'으로 일상을 더 행복하고 풍성하게 보내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만으로도 즐거운 일이다.

볼로냐는 이탈리아 반도 북부 중앙에 위치한 도시로, 아동 도서전을 유치한 지 벌써 50년이 넘는다. 오랜 역사와 권위를 대변하듯 전 세계의 책쟁이들은 이 기간 동안 볼로냐로 몰려든다. 기존의 서구 중심이었던 획일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난 도서전에서는 각 문화의 독자적인 이미지를 되살린 출판물들이 점점 다양으로 교류되고 있다. 해마다 부대행사 중 하나로 세계 아동 그림 작가들의 등용문이라 할 수 있는 '일러스트레이터 전시회'를 열어 전 세계 일러스트레이터들의 작품을 초대, 전시하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각국의 젊은 예술가들이 대거 몰려드는 장관을 이룬다.

우리나라에서도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이 인쇄되는 과정을 직접 시연해 보였고, 이는 많은 관람객의 관심을 받으며 우리의 앞선 인쇄문화를 알려 자부심을 높였다.

모든 책은 결국 문화의 기록이다.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일하는 모든 이들이 각자 자신들의 문화를 보내이고 알리며 자부심을 느낀다. 서로 눈을 마주치고, 만나고, 부딪치고, 교류하며 때로는 경쟁하는 곳. 바로 '볼로냐 도서전'의 오늘이다.



## POD실의 신사! 김익성 과장님을 소개합니다.



### 1. POD에서 어떤 업무를 주로 하시는지요?

POD실의 설비관리, 제작, POD 생산관리와 B2B 영업 및 내부고객(해외영업 및 국내영업팀)을 상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 2. 계속 이 분야 일을 해오셨나요?

2007년 8월에 입사하여, 1년간은 POP시스템을 담당하였고, 2008년 이후부터 CMS와 POD 파트 업무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 3. 근무하시면서 힘든 적은 없으세요? 어떤 때가 가장 힘드신가요?

촉박한 스케줄임에도 불구하고 빠른 납기를 요구받아 무리하게 생산을 진행해야만 할 때가 가장 힘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할 때는 설비 고장까지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이지 엎친 데 덮친격이란 속담처럼 안 좋은 상황이 동시에 겹칠 때, 이런 때는 날을 새면서 작업을 해야 하다 보니 이런 부분이 가장 힘들고 지치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 4. 힘들 때 쓰인 스트레스는 어떻게 푸시는 편이신가요?

숨이 턱 밀까지 차오르도록 달리거나, 친구들과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술 한 잔에 풀곤합니다.

### 5. 만약 10년 전으로 되돌아간다면 무엇을 했을 것 같으신가요?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 좀 더 공부를 했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래머가 되어 성장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 6. 여가시간은 주로 어떻게 보내시나요?

티비 보기, 영화관람, 게임 등을 하며 지냅니다.

### 7. 봄이라 날씨도 많이 따뜻해졌는데, 직원들에게 추천할 만한 여행지가 있으신가요?

봄에는 따스한 햇살 맞으며 경춘국도를 따라 드라이브를 하고 싶네요^^ 목적지를 정하고 가는 여행도 좋지만 가끔은 그냥 목적지 없이 떠나는 여행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발이 멈추는 곳마다 여행지가 될 것이고요^^

### 8.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으신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노하우 등을 팀원 및 필요한 분들에게 공유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같이 잘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운정 jody\_lee@gopacom.com

## 존경하는 엄마에게...



제본사업본부 SW 공정 윤인자 사원과 가족

엄마와 함께한 26년 동안 너무나 많았던 것들을 배우고 느꼈어요.  
어려운 형편에도 불평, 불만 없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오신 모습은 저에게 있어서 어느 누구보다 훌륭한 선생님이셨던거 같아요.

당뇨로 다리를 못 쓰시는 시어머니와 8년째의 시집살이 모두 받아들이면서도,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다 해야 한다면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보듬어 주셨던 엄마...  
정직 보인 자식을 키웠어도 저와 동생에게 행운이나 작은 흐름이라도 생길까, 마음의 상처는 입지 않으까, 항상 노심초사하는 마음... 그 덕분에 저와 동생이 구걸 없이 잘 자랄 수 있었어요.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엄마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면서, 엄마의 지난 시간들을 더 대단하게 느끼지는 거 같아요.  
저는 회사 하나 다니면서도 집에 오면 쉬고 싶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엄마는 제가 지나가는 말로 뭐가 먹고 싶다고 하면 그 작은 것까지 기억하셔서, 식탁 위에 올려 주셨죠.  
회사 생활로 피고하실텐데 집안일까지 꼼꼼하게 챙기시고, 시댁의 허리를 일까지 도맡아하시는 거 보면 엄마의 직업은 대체로 멋져 보이지 모르겠어요.

저는 회사 직장인 태도를 하나만으로도 지치고 힘들 때가 많는데...  
남편의 아내로, 자식들이 어머니로, 시댁에선 며느리로 뭘 하나 빠지지 않고 성실히 챙겨 다하시는 엄마가 너무 자랑스럽고 존경스러워요.

엄마... 전 집에서 지셨던 그 집들을 내려 놓으셔도 될 거 같아요.  
그 동안 고생하셨던 만큼 남은 시간들 더 행복하게 보상해 드리고 싶어요.

엄마 자신이 아니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살아 오시느라, 혀자로서의 삶은 한번도 누려 보시지 못한 거, 묵은 대접받고 살 수 있는 엄마의 삶은 만들어 드리게요.  
회사도 종종 거 사드리고, 엄마가 종종 하시는 고양이, 코서트 저랑 같이 보러 다녀요~!!

그동안 제 엄마로 살아주셔서 감사해요. 엄마의 팔로 살수 있어서 행복해요.  
이제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한 함께 나누고, 만들기가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엄마~!!

## 찬란한 봄과 나의 부모님



북메이크 이가진

봄이구나. 퇴근하며 이젠 바람이 따스함을 새삼 느꼈다. 봄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다. 사람마다 봄에 대한 추억은 다를 것이다. 나는 봄이면 먼저 대학 시절이 떠오른다고 말한다. 의무로 들어야했던 채플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 숨이 차게 헐레벌떡 대강당 계단을 오르던 그 봄날 아침들도, 캠퍼스에 흐드러지게 피었던 목련, 자목련, 개나리 등도 아직 기억하니까. 이번 주말에는 친구들에게 학교 앞에서 만나자고 해볼까, 잠시 생각하는 사이 카톡이 왔다. “가진아, 오늘 많이 힘들진 않았나? 같이 맛있는 거 먹고 기분 전환할까? 우리 딸, 항상 사랑해!” 엄마다. 사실 대학 시절을 기억하기 전에 이미 마음속에 떠오르는 건, 바로 부모님이다.

아빠와 엄마의 결혼기념일도 따스한 봄의 절정인 5월에 있다. 중학생 시절 부모님께 직접 들은 이 로맨스는 소녀였던 내 가슴을 충분히 두근거리게 했다. 아빠와 엄마는 대학 시절 만나셨다. 엄마는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다니며 조교로 일하시다가 수의학과 복학생이었던 아빠를 만나셨다고 한다. 그 때 국문학과 교양 과목 리포트 점수를 잘 받고 싶었던 아빠는 땅콩 한 봉지를 들고 조교였던 엄마를 찾아오셨던 거다. 그렇게 우연히 만나 두 분의 사랑이 시작되었고, 결혼도 하셔서 나와 내 동생이 태어나 벌써 이만큼이나 컸다. 부모님을 본받아 나도 대학 시절 순수하게 운명을 만나고 싶었지만 뜻대로 되지는 않고 나이만 먹었다.

아마 대부분의 딸들이 그럴 테지만 나는 내 친구들도 인정하는 ‘엄마랑 Best Friend’ 인 유별난 사이다. 사춘기 시절에도 가족과 큰 갈등 없이 지냈던 나였지만 엄마와 더 각별해진 시기는 아빠가 2005년 봄에 작고하신 뒤였던 것 같다.

그 해 봄엔 유난히 꽃들이 만개했던 걸로 기억한다. 수업이 끝나고 본 하얀 벚꽃나무들이 너무 예뻐서 아빠께 ‘아빠, 지금 밖은 봄이 찬란하네요.’라는 문자를 보낸 기억도 난다. 하지만 그 해, 아빠와 함께 제대로 봄을 느끼지는 못했다. 아빠는 창문 앞을 기웃거리던 하얀 목련도 감상하기 힘들 만큼 편찮으셨다.

언제부턴가 좋은 것을 봄도, 맛있는 것을 먹어도 엄마를 떠올린다. 이 순간 홀로 계신 엄마와 같이 한다면 좋을 텐데,라는 생각도 자주 한다. 항상 내가 행복해야 당신도 행복하다는 엄마의 깊은 마음을 아직 내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말씀이 진심인 것은 너무나 잘 안다.

우리 가족 모두와 더불어 팩컴 가족들의 식구들도 올봄에는 더욱 행복했으면 좋겠다. 오늘 저녁에는 ‘가족 봄날 나들이’를 검색해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



## 팩컴의 무선왕국, 무선팀을 소개 합니다

축구팀도 구성할 수 있는 부서!!



무선팀의 기계 소리가 들리지 않는 날은 공장 휴무하는 날이죠. 식구가 많은 만큼 기계를 쭈욱 늘어놓으면 줄이 제일 긴 팀입니다.

멀리서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머리 색상을 사랑하는 훈남 정대성과장님은 언제나 직원들을 쟁한다고 합니다. 고된 일 마다하지 않고 불철주야 야간, 주간 종횡무진하는 이선재 대리님은 직장과 가정에서 부지런하기로 소문났고, 맞벌이 부부로 집안일을 솔선수범하는 김완수 대리님, 항상 기계정비를 하는 김주일 기장님, 얼마 전 자녀가 결혼해 시아버지가 된 조연일 기장님, 글씨 잘 쓰시는 한석봉 님 ㅎㅎ, 한국에 와서 적응 잘 하고 있는 이화룡 님, 언제나 짧은 머리로 깔끔하신 정창성 님, 이름처럼 얼굴도 미인이신 정윤선 님, 항상 밝은 웃음을 짓는 김혜자 님, 언제나 휴식시간이면 금연실에서 직원에게 음료수를 사주시는 허순월 님, ‘하하하’ 웃음소리가 우렁찬 전창옥 님, 휴일이면 부부등반을 하는 양세주 님. 와우, 많네요! ㅎㅎ~ 이렇게 리더쉽이 강한 정대성과장님을 필두로 맙은 일을 열심히 하며 어느 한 분도 빠짐없이 단체활동에 응화가 잘 되는 무선왕국입니다. 무선왕국 여러분 파이팅!

이원성 kothi@sipk.co.kr

## 통영꺼지 온다고 욕 봤지예!

한 폭의 수묵화 같은 소매물도 바닷길을 걸으며  
섬 곳곳 봄의 기운을 느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소매물도로 들어가는 첫 배에 몸을 싣기 위해 새벽부터 부산을 떨며 통영항으로 향했다. 오전 6시 50분 첫 배에 몸을 실으니 탁 트인 바닷길 풍경과 더불어 일출을 감상할 수 있어 좋았다. 한 시간 남짓 왔을까, 뱃멀미가 느껴질 무렵에 바다 가운데 우뚝 솟은 소매물도에 도달했다. 차가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작은 섬은 직접 두 다리로 걸어야만 섬 곳곳을 돌아볼 수 있다. 그래서 배에서 내린 모든 사람들이 마을 가운데로 난 가파른 포장길을 올라간다. 이 길을 따라 걷기 시작하면 카페에서 키우는 하얗고 순한 개들이 반겨준다. '섬과 개'라는 책의 주인공인 도도와 미르는 <TV 동물농장>에 출연도 해서 이제 소매물도만큼 유명세를 타고 있다. 이 길을 따라 20분 걸으면 폐교가 나타나고 벤치 옆에는 이정표가 세워져 있다. 길은 때로 가파른 언덕이거나 촘촘한 계단이어서 바람이 적잖게 불어도 땀이 송글송글 맺혔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걸어 나오면 아름다운 병풍바위를 볼 수 있다. 소매물도의 비경을



섬과 개 라는 책의 주인공인 도도와 미르



감상하며 등대섬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등대섬을 오가려면 반드시 물때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썰물 때는 몽돌밭으로 모세의 바닷길이 열려 등대섬까지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어렵게 물때를 맞추지 못한 나는 먼 발치에서 등대섬을 바라보는 것으로 아쉬움을 달랠 수 밖에 없었다. 여기서 잠깐, 물때 정보는 매물도 홈페이지 ([www.maemuldo.go.kr](http://www.maemuld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섬을 다 돌아보는 데는 2시간 30분이면 충분하다. 산책하듯 섬 곳곳을 돌아보고 선착장으로 가는 길에 자리 잡고 있는 카페에 앉아 푸르른 바다를 바라봤다. 그렇게 이국적인 소매물도 정취를 느끼며 섬 여행을 마쳤다.

주선영 [sunyoung@gopacom.com](mailto:sunyoung@gopacom.com)



**여행팁** 소매물도에 가는 출발지는 통영항, 거제 저구항 두곳이 있습니다.  
배 시간은 편도 하루 4~5차례 운행, 평일은 배편수가 적고 기상 여건에 따라 운항 여부가 달라지므로 사전에 꼭 확인 후 여행하기를 추천 드립니다.  
**배 시간 확인** <http://www.gjbada.com>



## 가정의 달 5월, 봄이 오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따뜻하고 화창한 5월의 봄날,  
사랑하는 부모님과 자녀의 얼굴에 밝은 미소를 선물하세요!



### 의왕 어린이축제

일시 : 2014년 5월 4일~5월 5일  
장소 : 의왕시 철도박물관, 왕송호수, 의왕 자연학습공원  
자연학습공원과 철도 박물관, 의왕조류생태과학관, 왕송호수 등에서 열리는 의왕 어린이축제는 재미있는 체험과 풍성한 볼거리로 가족과 많은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행사입니다. 행사는 기차나라, 가람나라, 어린이나라로 주제를 잡고 진행됩니다. 기차나라는 철도박물관에서 진행되며 철도를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의왕조류생태과학관과 왕송호수 일원에서 진행되는 가람나라에서는 생태 자연과 함께하는 어린이 체험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아천 도자기축제

일시 : 4월 20일~5월 20일  
장소 : 경기도 이천시 관고동  
경기도 이천은 청동기 시대부터 시작된 도자기의 역사와 담고 있는 고장입니다. 이천 도자기 축제에서는 '도자, 나눔과 휴식'을 테마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



### 조계사 연등회

일시 : 2014년 4월 25일~5월 11일  
장소 : 종로구 조계사, 강남구 봉은사, 청계천 일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진행되는 연등 행사는, 절 내에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동자승과 부처님 캐릭터뿐만 아니라 뽀로로 같은 다양하고 재미있는 캐릭터들의 연등을 준비하여 행사에 아름다움과 재미를 더했습니다. 연등회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행사장 어디를 가도 볼거리, 즐길거리가 넘쳐 역동적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고, 특히 청계천 일대에서 펼치는 전통등전시회에서는 놓칠 수 없는 아름다움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 파주출판도시 어린이 책잔치

장소 : 경기도 파주 출판도시 각종 그림책부터 육아서까지 다양한 책이 쏟아지는 파주출판도시에서 자녀를 위한 어린이 책 잔치를 펼칩니다. 5월 3일부터 6일까지 어린이 백일장, 어린이 학창대회, 책 벼룩시장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립니다. 5월 4~5일에는 '오월의 할로윈' 프로그램을 늦은 저녁까지 재미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 한강 여의도 봄꽃 축제

일시 : 2014년 4월 예정  
장소 : 여의서로(국회듯이) 일대  
매년 따뜻한 봄기운이 살포시 느껴질 때면 여의도에서는 우리나라 제주도가 원산지인 왕벚나무 1,641주를 비롯, 진달래, 개나리, 철쭉, 조팝나무, 밀발도리 등 13종 87,859주의 봄꽃이 만개해 넓게 트인 한강을 배경으로 봄의 향연이 펼

쳐집니다. 아름다운 봄꽃과 깊은 문화예술이 살아숨쉬는 2014년 한강여의도 봄꽃축제는 남녀노소 흥겹게 참여할 수 있는 노래자랑, 거리예술공연 바이오페스티벌(VIAF), 뿐만 아니라 코코몽 등 귀여운 캐릭터 퍼레이드, 꽃마차 운영, 지역예술동호회와 유관기관의 공연, 백일장 등 다양한 공연, 전시, 홍보, 체험행사들로 상춘객 여러분의 설레는 마음을 가득 채워드릴 것입니다.



### 진해군향제

일시 : 2014년 4월 1일~4월 10일  
장소 : 창원시 진해구 중원로  
이목장으로 광활한 초지에 각종 체험시설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목장 체험과 전통 농가 체험을 할 수 있는 무무벌리지, 승마 체험을 할 수 있는 승마센터, 환상적인 동화나라를 체험할 수 있는 스토리빌 등의 공간이 있습니다. 다양한 가축을 직접 손으로 만져보며 체험하는 것은 물론 관광마차와 트랙터마차, 전동차 등을 직접 타볼 수도 있습니다.

### 터리 및 도심 일원

벚꽃놀이 중 최고인 진해군향제가 개최되는 춘삼월은 우리나라 상춘객들을 잔잔한 바다를 품은 군항도시로 모여들게 합니다. 36만 그루 왕벚나무의 새하얀 꽃송이들이 일제히 꽃망울을 터트리며 세계 최대 벚꽃도시에서 봄날의 추억을 남기려 포토홀리이 되는 사람들과 꽃비가 흘날리는 봄의 향연에 취한 사람들 이 한데 어우러져 출렁이는 모습은 축제의 장관을 이룹니다. 진해군향제 행사는 이충무공

5월 13일까지는 호밀밭 대축제가 열립니다.  
박미선 tamgru@gopacom.com



### 역사 e

EBS 『역사채널 E』를 책으로 만나요!

『역사 E』는 2011년 10월부터 기획·편성된 프로그램인

『역사채널 E』의 내용들을 간추려 모은 책입니다. 『역사채널 E』는 『지식채널 E』의 포함을 벤치마킹해 한국사의 주요 사건과 인물들을 새롭게 조명한 프로그램입니다. 본문 속에는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며 우리가 던질 수 있는 본질적인 질문인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라는 물음을 중심으로 이와 관련된 역사적인 테마들을 압축적이고, 밀도 있게 풀어낸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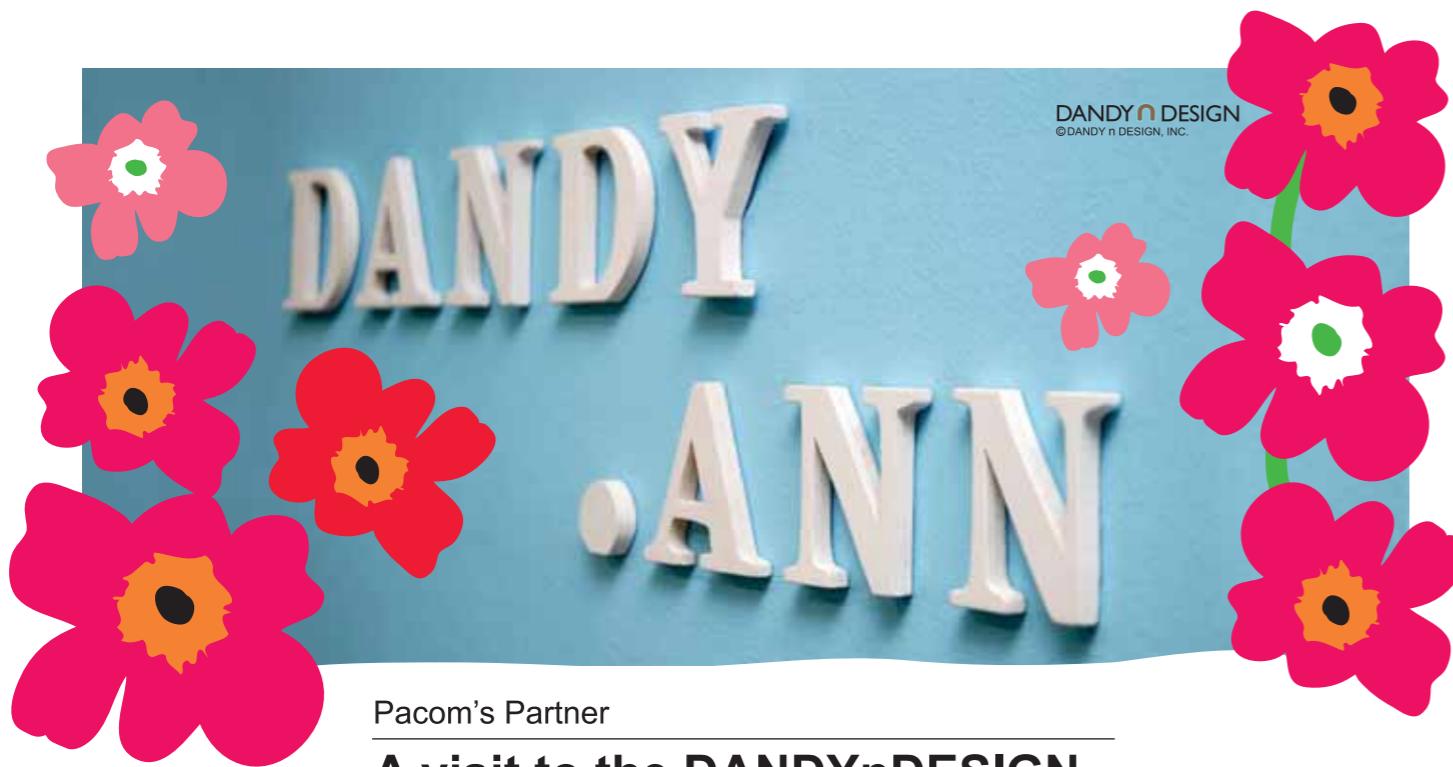


매일 희망의 별에 불을 지펴라  
비타민처럼 들고 다니며 하루 하루 복용하면 좋은 책.

한 장 한 장 뜯어 쓰던 두툼한 달력처럼 하루에 한 장씩

페이지를 넘기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저자는 특히 마크 트웨인, 링컨, 알버트 앤더슨, 벤저민 프랭클린, 나체, 오스카 와일드, 에머슨, 토마스 제퍼슨 등의 천재적인 관찰력과 용승 깊은 철학에 매료되었으며 메이 웨스트, 말론 브랜드, 잭 니콜슨, 마릴린 먼로 등이 남긴 존失落인과 같은 명언에도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들의 말을 원문으로 신고 풍부한 일화를 겪들여 글 읽는 재미를 더했습니다.





Pacom's Partner

## A visit to the DANDYnDESIGN

2014년 봄을 팩컴과 함께하는

댄디앤디자인은 기업 Promotion Item 을 카테고리별로 다양하게 기획, 디자인, 생산하는 업체로서 팩컴과는 2014 멕시카나 카렌다를 생산진행하면서 인연을 맺었으며, 최근에는 팩컴 해외사업부의 다양한 상품기획 의뢰로 Partner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봄부터는 우리 주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모든 상품을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실용성을 바탕으로 한 디자인 잡화 브랜드 DANDY.ANN을 런칭 준비중이며 온라인 디자인샵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www.dandyndesign.com](http://www.dandyndesign.com)



heineken cool bag/water bottle



mexicana calendar



somang ONL eco ba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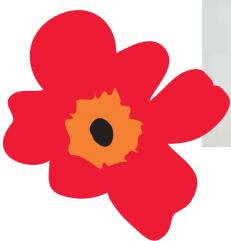
caffebene cardcase



mexicana iu picnic mat



oliveyoung pouch



Pacom's Partner  
**(주)주성해운**



1998년 늦은 겨울 날, 낯설고 어눌한 상태로 한 손엔 B/L을, 다른 한 손에는 제 이름이 적힌 첫 명함을 들고 현재의 (주)팩컴코리아와 인사 드렸습니다. 참으로 꿈 많고 설레던 시절이었습니다. 백지상태에서 시작해 누구나 경험했을 신입의 첫발이었습니다. 난생 처음 미주 수출입과 생소한 무역용어들, 고객들과의 소통과정, 뒤돌아보면 소중하고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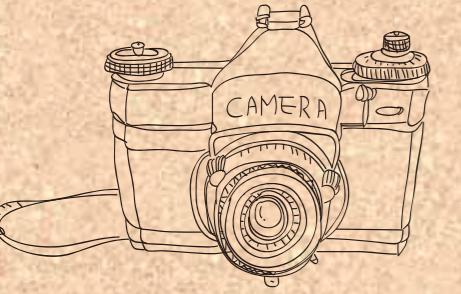


직장생활에 대해 꿈꾸던 기대와 불안함은 시간이 가면서 성장하는 기회를 주었고, 여우 같은 아내와 토끼 같은 아들 두 명을 주었습니다. 이제는 제법 흰머리도 멋있어 보기 시작합니다.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시간은 흘렀고, (주)팩컴코리아와 함께 걸어온 나날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를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함께 해주신 (주)팩컴코리아 사장님과 임직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인쇄업계에 있어 (주)팩컴코리아의 명성과 위상은 다들 알고 있습니다. '팩컴이 만들면 명품이다'라는 글귀는 회사가 가지는 자부심과 포부, 미래에 대한 도전정신을 잘 설명해주고 있으며, 그 동안 제가 경험했던 팩컴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들어 주신 명품을 그에 맞는 최상의 서비스로 이상 없이 고객 분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제 소임이라고 믿습니다.

(주)주성해운은 1990년 창사이래로 미주 서비스에 있어서만큼은 동종업계에 이름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개개인의 역량보다는 사장님 이하 직원들의 수고와 노력이 이를 뒷받침하였고, 좀 더 좋은 서비스를 드릴 수 있도록 현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4월이면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승인으로 미주로 향하는 화물에 대한 미국 세관검사를 대폭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차별화되고 최적화된 서비스와 경쟁력 있는 운임으로 PACOM이 세계시장에 나아가는 데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래 전 1998년 추운 겨울, 제게 주셨던 따뜻한 녹차를 떠올리며 과거, 현재, 미래 변함없이 감사한 마음으로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찰칵소리

재미있고 기억에 남는 사진을 보내 주세요.  
E-mail : suhee5336@nate.com



## PACOM NEWS

## 2014년 팩컴 그룹 사무식



팩컴그룹은 2014년 첫 출근일인 1월 2일 본사 5층 사내 식당에서 '청마의 해' 힘찬 약진을 위한 시무식을 개최했다. 김경수 대표이사, 최숙 대표이사 외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2014년 팩컴인의 마음 가짐 “1. 비전UP 2. 열정UP 3. 역량UP”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기반을 닦는 시무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팩컴코리아 유현애 과장 승진, 팩컴AAP의 강영일 과장 승진 등 진급자 수여식도 함께 진행되었으며, 끝으로 전 직원과 임원진은 일일이 상호간의 약수를 하며 갑오년의 희망찬 새해 첫 발을 시작하였다.

## 품평회 개최

팩컴AAP(주)는 지난 1월 13일 5층 사내식당 강당에서 2013년의 생산품질 평가 품평회를

최숙 대표이사와 140여 명의 전 직원이 모인 가운데 개최했다.  
특히 이날 품평회에서는 품질사고와 관련해 확인의 절차가 필요하고 "두 손가락 뒤에는 지적할 수 있는 세 손가락이 보고 있다"는 최숙 대표이사의 말씀에 따라 생산되는 제품에 대하여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직원들의 의견이 있었다.



## 팩컴 CA(Change Agent) 제도 시행

팩컴은 지난 1월 19일 회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각 부서 중간관리자를 상대로 올 한해 제안제도를 통해 회사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CA(Change Agent) 17명을 발표했다. 앞으로 이들의 활약이 기대된다.

CA명단 : 관리부 신언철 과장, prepress사업부 서무광 과장, 인쇄사업본부 윤석도 과장, 박충용 과장, 신정학 과장, 제본사업본부



강영일 과장, 이정근 과장, 정대성 과장, 안준 과장, 황영걸 과장, 심은식 과장, 생산관리부 김희수 차장, 경영기획부 송창건 차장, 안산공장 박범우 과장, 국내영업부 이승준 과장, 해외영업부 성문기 차장, 북메이크 김익성 과장

## 아침 출근길 어묵, 주먹밥과 함께 한줄거운 시간



지난 2월 11일 화요일 아침 추운 날씨에 회사 중앙 출구 앞에 직원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겨울 아침, 회사 사내식당을 운영하는 (주) ecmd가 준비한 특별한 이벤트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열린 것이다. (주)ecmd는 출근하는 직원들을 위해 따뜻한 어묵과 주먹밥을 준비했다.  
이벤트 전날 이미 공지를 해서 일부 직원들은 아침을 거른 상태로 출근을 했으며 더러는

전날 음주 해소를 해결할 수 있었다.

## 대한인쇄문화협회 모범근로자 표창 수상



지난 2월 24일 우리 회사의 제본사업본부 무선팀 정대성 과장이 호텔PJ 4층 카라디움 홀에서 개최된 2014년 대한인쇄문화협회 정기총회에서 인쇄 업계와 회사 발전의 공로를 인정 받아 모범근로자 협회상을 표창하였다.

## 봄철 결혼 시즌을 맞아 직원 자녀 결혼식

지난 3월 1일 제본사업본부 무선팀 조연일 기장의 장남 조현석 군이 양가 부모님, 친척, 직원들의 축복 속에서 백년가약 화촉을 밝혔다.



지난 3월 8일 김홍규 상무님의 차남 김진현 군이 양가 부모님, 친척, 직원들의 축복 속에서 백년가약 화촉을 밝혔다.



## 새로운 가족을 환영합니다



1/4분기에 새로 입사하여 팩컴 그룹의 가족이 되신 여러분을 축하합니다.

왼쪽부터 생산관리부 물류팀 김용성, 경영기획본부 북메이크팀 김정은, 이가진, 인쇄사업본부 황용대입니다.



한편 지난 2월 말 일자로 정년을 맞이하신 서형미(제본)님 축하드리며, 서형미님은 회사의 방침에 따라 계약직으로 전환되어 회사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자녀 출산을 축하합니다

비서실 허우미 대리가 2014년 1월 8일 오랜 기다림 끝에 정연오 군을 출산했다. 허우미 대리는 만삭을 이끌고 12월 말 종무식까지 출근을 한 후에 출산 휴가를 들어가려 했으나 사정상 예정보다 일주일 빠른 휴가에 들어갔

으며, 예정일보다 다소 늦은 일정에 순산을 하였다고 한다.



이원성 kothi@sipk.co.kr

## PACOM NEWS



갑오년의 말띠의 해 직원



말띠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포부와 각오를 가지고 2014년을 맞이한 직원을 소개한다.

왼쪽부터 정순이, 이성만, 김철성, 이정우, 박용진, 김완수, 이인수, 곽영근, 김용성, 이선재, 임영임, 김향진, 최은환, 이준석, 김민성